

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를 제안합니다

2003년도에 연세 안에는 “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(이하 연성뿌연)”가 구성되어 활동을 벌여나갔습니다. 연성뿌연은 각 단대별로 반성폭력을 고민하는 주체들이 각자의 단위에서 겪는 고민과 활동을 공유하고 만들어가는, 전단대를 포괄하는 활동단위입니다.

그러나 지난해 연성뿌연 활동은 1,2월에 반짝 새터 내규 교양과 홍보 작업을 진행했을 뿐, 각 단대의 참여율 저조와 관심의 부족으로 인하여 흐지부지되었습니다. 그 결과 지난해 2학기에 있었던 ‘반성폭력학칙 개정과 개선을 위한 공청회’와 같은 연성뿌연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했던 사업(2000년 연성뿌연 활동을 통해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이끌어냈듯이)들을 총여학생회와 몇몇 단대학생회만이 참여해 만들어 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.

모두가 알고 있듯이, 성폭력의 문제는 개인이, 혹은 어느 한 단체만이 움직여서는 결코 해결될 수도, 그리고 효과적인 담론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.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끊임없이 희화화되거나 선정적인 문제로서만 다루어지는 현실에서,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변화는 한없이 요원한 일로 그쳐버릴 것입니다. 또한 단대마다 다른 특수한 상황들을 공유하고, 그 상황에 맞는 운동을 펼쳐 나가지 못한다면 반성폭력 운동은 효과적으로 이루지지 못할 것입니다. 이에, 2004년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.

2000년 “연성뿌연”활동이 反성폭력 학칙에 있어 학생참여보장을 명시적으로 이끌어낸 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,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만이 아닌 연세 성원 모두의 참여가 있을 때 성폭력 없는 연세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. 현장활동, 과반·동아리 MT, 각 단과대 별 상황에 맞는 자치규약의 제정이나 현재 제정되어 있는 反성폭력 학칙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등 연성뿌연을 통해 反성폭력의 흐름을 만들어 나

성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성폭력의 경험이 있는 피해자나 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누차에 걸쳐 강조되어왔듯이, 성폭력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차원의 문제이며 이는 곧 생활 영역 곳곳에 침투하여 끈덕지게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.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단위에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천에 함께 합시다. 그리고 연성뿌연을 통해, 보다 풍부한 논의들을 만들어 내봅시다.

2004. 1. 12

-단대별 반성폭력 자치규약

$$\frac{1}{A} \approx \frac{1}{A_0} + \frac{1}{A_1}$$

아마도 짐작할 수.
(01.81476)

$$L_{T^2} \cdot L_{T^2} = 0$$

오기 싫을수록: 아지... 응지앙 응지앙...